

[1 ~ 3] 다음은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찬성 1: 저는 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들의 조리법부터 표준화해야 합니다. 한식의 조리법은 복잡한 데다 계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조리하는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식 고유의 맛과 모양에서 많이 벗어난 음식들까지 등장하여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들부터 식자재 종류와 사용량, 조리하는 방법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해 놓으면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 2: 한식의 표준화가 획일화를 가져와 한식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찬성 1: 물론 해 보았습니다.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도 있지만,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자: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과 이에 대한 교차 조사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가 입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조리하는 사람의 깊은 손맛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식을 선불리 표준화하면 이러한 한식 고유의 손맛을 잃어 버려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이 오히려 더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찬성 1: 한식 조리법을 표준화하면 손맛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대 1: 손맛은 조리하는 사람마다의 경험과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조리법을 표준화하면 음식에 이러한 것들을 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자: 이어서 찬성과 반대 측 토론자의 두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차 조사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 저는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K-pop)과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 속에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 음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한식의 조리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한식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외국의 한식당에 가 보니 소금에 절이지도 않은 배추를 고춧가루 양념에만 버무려 놓고, 이것을 김치로 판매하고 있더군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식의 세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 1: 그것은 한식의 표준화보다 정책 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찬성 2: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다면 정부의 홍보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반대 2: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외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식당들이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카레로 유명한 나라지만 표준화된 인도식 카레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의 표준을 정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인들의 입맛은 우리와 다르고 또 다양할 텐데 한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오히려 한식의 세계화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1.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한식 조리법의 특성과 최근의 부정적 상황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반대 1’은 한식의 표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찬성 2’는 한식의 표준화가 여러 대안들 중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반대 2’는 현황과 사례를 들어 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반대 2’는 한식 표준화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2. 위 토론에 나타난 하위 쟁점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 보 기 > —
- ㄱ. 정부의 정책을 통해 한식을 세계화할 수 있는가.
 - ㄴ.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가.
 - ㄷ. 손맛을 한식의 표준화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 ㄹ.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고유한 맛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은 위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했던 학생이 쓴 글이다.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한식은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식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식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의 조리법을 표준화하면 한식의 전통을 유지하기에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식의 표준화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내가 외국에서 살았을 때, 한국에서 사용했던 조리법 그대로 음식을 만들어 주어도 맛이 없다고 말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입맛은 다양하고 외국의 식자재도 한국의 식자재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 한식을 표준화하는 것보다는 세계인들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물론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 ① ㉠: 한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를 ‘찬성 2’와는 다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군.
 ② ㉡: ‘찬성 1’이 제시한 의견의 일부에 공감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군.
 ③ ㉢: ‘찬성 2’의 주장에 부합하는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군.
 ④ ㉣: ‘반대 2’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향의 논지를 제시하고 있군.
 ⑤ ㉤: ‘찬성 1’과 ‘반대 1’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군.

[4~5] 다음은 인터뷰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진로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라는 교수님의 강연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 오늘은 교수님께 지역학에 관한 정보를 얻어 저희 학교 교지에 특집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교수: (웃으면서) 고등학생이 지역학에 관심을 가져 주니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학이란 어떠한 연구를 하는 학문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수: 지역학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학생: ㉡ 그럼 지역학은 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학생: 연구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네요. 한국학도 지역학의 한 영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역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 (표를 보여 주며) 지역학의 영역을 체계화한 표입니다.

학생: (표를 살펴보며) 한국학이라는 지역학 안에 서울학, 영남학, 호남학, 제주학 등의 지역학이 있네요?

교수: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의 지역학은 15개인데,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지역학 연구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이 좋을까요?

교수: (고개를 저으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 해당 지역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연구자로 적합하겠지요.

학생: 지역학의 전망은 어떤가요?

교수: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에서 지역학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이라는 말이 다소 어려운데요.

교수: ㉣ 쉽게 말해,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이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각입니다.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이 과제인 미래 사회에서 지역학은 각광 받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지역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사를 썼으면 좋겠네요.

학생: ㉤ (고개를 끄덕이며) 네, 교수님 말씀처럼 지역학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써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터뷰의 목적을 밝히면서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② ㉡: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③ ㉢: 상대방의 경험을 환기하여 화제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⑤ ㉤: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5. 인터뷰를 마친 후 학생이 인터뷰 계획에 따른 자기 점검표를 작성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 점검표

인터뷰 계획	실행 여부		
	예	아니오	
지역학의 전망에 대해 물어본다.	✓		①
지역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		②
지역학과 관련하여 특집 기사에 넣을 만한 시각 자료를 요청한다.		✓	③
지역학과 한국학의 관계 속에서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확인한다.		✓	④
지역학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지역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대해 질문한다.	✓		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예상 독자: 정부 관계자 ㉠
- 글을 쓰게 된 배경: 주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부당한 일을 자주 겪고 있음. ㉡
- 글을 쓰는 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함. ㉢
- 유의할 사항: 학교에서 건의문 쓰기에 대해 배운 내용 중 다음 사항에 유의하고자 함.
 1. 예의 바르게 글을 시작하고, 정중하게 표현한다. ㉣
 2.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

(나) 학생의 초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박세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 그만둔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지 제 주변 친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청소년들의 1/3 가량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데, 그중 19.2%에 달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아르바이트라도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또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고용주들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그것이 ㉢ 저해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당국에서 고용주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를 엄중하게 ㉣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과 권리구제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를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의식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책을 건의한다.
- ② ㉡를 드러내기 위해 친구들이 겪은 사례를 제시한다.
- ③ ㉢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 ④ ㉣를 고려하여 인사말과 자기소개로 시작하고 경어체를 사용한다.
- ⑤ ㉤를 고려하여 현 실태를 보여 주는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한다.

7. <보기>의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료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설문 내용	응답률	
	예	아니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28.3 %	71.7 %
청소년이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 전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25.9 %	74.1 %

[자료 2] 전문가 인터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고 계속 일했다.’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관계 법령의 내용이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 ① 고용주들이 노동관계 법령을 잘 몰라서 불러올 수 있는 피해를 추가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정부 당국이 노동관계 법령을 어기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③ 청소년들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④ 고용주들이 근로 기준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가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8.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을 ‘그만둔 지’로 수정한다.
- ②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을 삭제한다.
- ③ 어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을 ‘침해당했을’로 교체한다.
- ④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을 ‘처벌해야’로 수정한다.
- ⑤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므로, ㉤을 ‘그런데’로 교체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학교에서 개최된 ‘리더십 캠프’에 참가하여 ‘경청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을 듣고,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학생의 글]

지난 주 학교에서 개최된 ‘리더십 캠프’에 참여하였다. 캠프에는 리더십 게임, 강연, 모둠 토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나는 ‘경청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의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식의 수준이 낮았던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가 권력자에게 집중되었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원화된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의 개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청의 리더십이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된다는 것이 강연의 핵심 내용이었다.

강연을 듣고 나니 리더십에 대한 나의 생각이 편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지시하는 것만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학기에 동아리 회장으로서 축제 준비를 할 때, 나는 리더로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동아리 부원들이 나에게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러나 강연을 들으며 생각해 보니 그때 나는 부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주장만 했던 것 같다. 부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더 알찬 행사를 구성하고, 더 즐거운 분위기에서 축제를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9. <보기> 중 [학생의 글]에 활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강연의 인상 깊은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ㄴ. 강연의 내용을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ㄷ. 강연에서 깨달은 바를 글쓴이의 경험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ㄹ. 강연 내용을 토대로 그릇된 통념이 널리 확산된 이유를 규명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학생의 글]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강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할 것.
 ○ 앞으로의 다짐을 밝힐 것.
 ○ 직접 인용의 방식을 활용할 것.

- ① 전에 읽은 책에서도 ‘남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절을 본 기억이 난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듣고 포용하는 태도를 길러 좋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야겠다.
 ② 여러 사람의 개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청의 리더십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꺼리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자신을 낮추어 봉사하는 자세가 아닐까?
 ③ 사람에게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둘인 까닭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뜻일 것이다. 내 말만 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일은 없어야겠다.
 ④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은 상호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하기 쉬우므로 앞으로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11. <보기>는 겹받침 ‘리’의 표준 발음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 각각에 해당하는 표준 발음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리’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 받침 ‘리’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과 ‘ㅎ’을 합쳐서 [ㄱ]으로 발음한다.
 ㉣ ‘리’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받침 ‘리’은 ‘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한다.

- ① ㉠: 햇살이 눈부시게 밝다[박따].
 ② ㉡: 밝게[발게] 웃으며 인사하다.
 ③ ㉢: 그는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발켄따].
 ④ ㉣: 전등의 밝기[발끼]를 낮추다.
 ⑤ ㉤: 동쪽에서 날이 밝는다[방는다].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이다. 한글 맞춤법 조항의 내용과 ㉠, ㉡을 적절하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

— < 보 기 >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추가되었다.

㉠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음. 예) 맏이, 굳이, 묻히다	㉡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ㄴ’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음. 예) 희망, 하늬바람	㉢
㉢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음. 예) 떡이, 손이, 팔이	㉣
㉣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함. 예) 목거리(목병), 노름(도박)	㉤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음. 예) 꽃잎, 헛웃음, 굶주리다	㉥

13.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문장을 어법에 어긋나거나 부자연스럽게 사용한 대표적 유형으로는,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성분이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 등이 있다.

- ㉠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자.
- ㉡ ㉡: 새벽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뭇잎이었다.
- ㉢ ㉢: 나는 집에 오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두었다.
- ㉣ ㉣: 새로 산 자동차에 짐과 동생을 태우고 여행을 떠났다.
- ㉤ ㉤: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14. 다음은 ‘달다’에 관한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달다¹ ㉠ 【...에 ...을】 [달아, 다니, 다오]
 ㉡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
 예) 배에 돛을 달다.
 ㉢ 이름이나 제목 따위를 정하여 붙이다.
 예) 작품에 제목을 달다.

달다² ㉣ [달아, 다니, 다오]
 ㉤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예) 아이스크림이 달다.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흡족하여 기분이 좋다.
 예) 나른한 식곤에 잠이 달았다.

- ㉠ ‘달다¹’과 ‘달다²’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느군.
- ㉡ ‘달다¹’과 ‘달다²’는 모두 연결 어미 ‘-니’가 결합되면 ‘다니’로 활용되느군.
- ㉢ ‘달다¹’ ㉡의 용례로 ‘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 ‘달다²’ ㉤의 속담은 ‘달다’와 ‘쓰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 ‘달다¹’의 ㉢은 ‘달다²’ ㉢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더 많군.

15.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누어진다.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고,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능동문	피동문
㉠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	두 학생이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	참새 네 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
㉢	낙엽이 바람에 난다.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
㉣	해당 사례 없음.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풀렸다.

- ㉠ ㉠의 피동문은 능동문에 비해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 ㉡과 ㉢은 모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 ㉢ ㉢과 ㉣은 모두 능동문과 달리 피동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 ㉣은 자동사를 피동사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 ㉤은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16.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중세 국어] ㉠ 부테 目連(목련)이드려 ㉡ 니르샤딘

[현대 국어] 부처가 목련에게 이르시되

[중세 국어] 耶輸(야수) ㉢ 부텃 使者(사자) 왔다 ㉣ 드르시고

[현대 국어] 야수가 부처의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중세 국어] 내 딸 勝鬘(승만)이 聰明(충명)하니 부터웃 ㉤ 보스븐면

[현대 국어] 내 딸 승만이 충명하니 부처만 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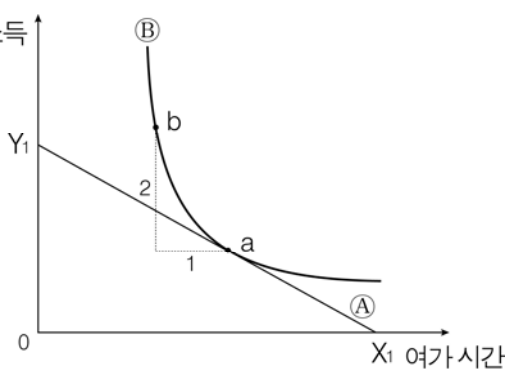
- 『석보상절』 -

- ①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고유어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 관형격 조사로 ‘스’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루 중 일을 하거나 여가에 ㉠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소득도 개인에 따라 거둘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이렇듯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여가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최적의 조합을 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소득도 증가하므로 여가와 노동 간의 선택 문제는 곧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공급의 결정 모형을 ‘노동-여가 선택 모형’ 또는 ‘소득-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한다.

(나) X축을 여가 시간, Y축을 소득이라고 하면, 여가 시간과 소득이 제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여가 시간과 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인 X_1Y_1 을 오른쪽의 ㉡와 같이 그릴 수 있다. 예산제약선은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소득과 여가의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산제약선 X_1Y_1 에서 X_1 은 선택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최댓값이고, Y_1 은 소득의 최댓값이다.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시간당 임금이 된다. 그리고 여가 시간을 나타내는 X축은 노동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시간을 여가 아니면 노동에 사용하므로 총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제하면 그 나머지가 노동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선호도는 위의 ㉢와 같이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무차별곡선은 노동 공급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을 서로 연결한 선을 의미한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인 ‘한계대체율’을 나타낸다. 한계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위의 무차별곡선 ㉢상의 b에서 a로 선택을 바꾸려면 여가 시간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 소득 두 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한계대체율은 2이다.

(라)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위의 ㉡, ㉢와 같이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주어질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 조합은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즉 a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결정될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동일한 노동 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노동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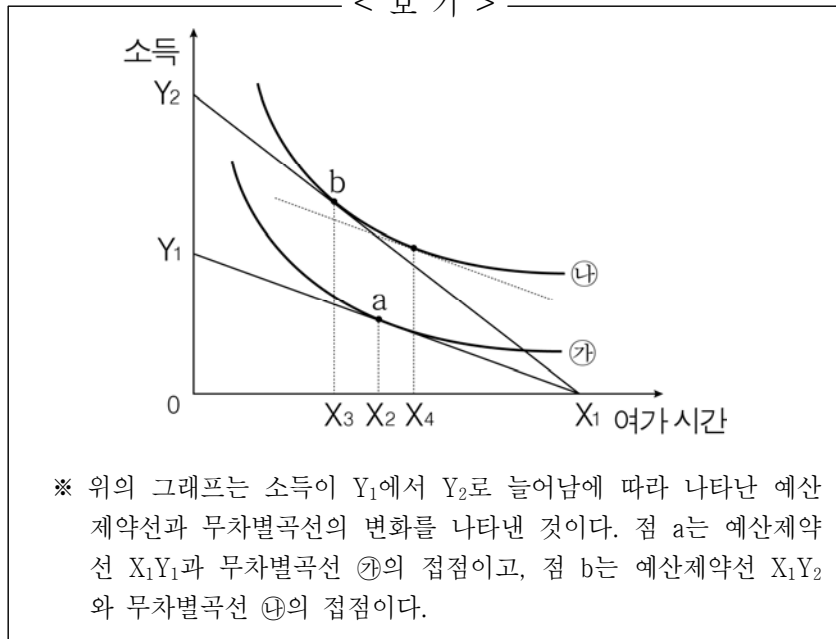
(마)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노동 시장의 수요·공급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을 토대로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노동 공급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사회 보장 제도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 한계효용: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되는 효용의 양.

1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예산제약선의 개념과 함께 예산제약선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무차별곡선의 개념과 함께 한계대체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과 시간당 임금 상승 시의 노동 공급 결정 양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1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 a에서는 한계대체율과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게 된다.
- ② 점 a보다 점 b에서의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의 총합이 크다.
- ③ 예산 제약선 X_1Y_1 과 X_1Y_2 의 기울기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 ④ X_4 에서 X_2 를 뺀 값은 대체효과를, X_4 에서 X_3 을 뺀 값은 소득 효과를 보여 준다.
- ⑤ 소득의 최댓값이 Y_1 에서 Y_2 로 높아진 것은 소득과 여가 시간의 선택에 관한 제약 조건이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19. (다)를 토대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 씨는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한다. 반면에 B 씨는 소득을 여가보다 선호한다. 이 두 사람의 ‘소득-여가 선택 모형’ 그래프를 그리면,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A 씨와 B 씨의 무차별곡선상에서 동일하게 소득 3단위와 여가 1단위를 선택한 조합을 나타내는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 씨보다 A 씨의 무차별곡선에서 급한 것이다. 이것은

- ①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한계대체율이 작기 때문이다.
- ②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한계대체율이 크기 때문이다.
- ③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작아서 한계대체율이 작기 때문이다.
- ④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작아서 한계대체율이 크기 때문이다.
- ⑤ A 씨와 B 씨의 소득의 한계효용과 여가의 한계효용은 같지만 한계대체율이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20.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 쓰겠니?
- ② 강한 공을 던지려면 허리를 잘 써야 한다.
- ③ 회사에서는 경력자를 써서 그 일을 하기로 했다.
- ④ 자식에게 쓴 돈은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 ⑤ 아랫방을 쓰는 형이 불편하다며 서로 방을 바꾸자고 했다.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실제로는 그 일을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이 이 편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우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결과가 알려지고 난 후에는 대개 필연적인 사건들로 해석되는 것도 이 편향의 결과이다. 이 편향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뉜다. 동기적 설명은 우선 ‘통제감’에 대한 추구와 관련된다. 통제감이란 ‘자신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감을 확인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동기적 설명에서는 자신을 지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싶어 하는 자기 과시의 동기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지적 설명은 ‘잠입적 결정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동기적 설명에 비해 더 강한 지지를 받아 왔다. 이 이론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고 본다. 즉 결과를 알고 나면 결과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표상에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표상은 선행 사건과 가능한 결과들에 대한 인과 관계 모형을 변화시켜, 주어진 결과와 선행 사건의 인과 관계를 강화시키지만 일어나지 않은 결과와 선행 사건의 인과 관계는 약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사후에 갖게 되는 표상에서는 일어난 결과만이 존재하게 되고 가능했던 다른 결과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른 결과들에 대한 사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난 결과와 관련된 사고만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알려지면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러한 설명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을수록 사후 과잉 확신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사후 과잉 확신의 발생에는 인과 추리가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사후 과잉 확신의 크기는 사후 설명의 용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판단 및 의사 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편향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감소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추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특정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 ④ 정의와 구분의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2.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사후 과잉 확신 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는가?
- ②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편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③ 잠입적 결정론에서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④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원인에 대한 동기적 설명에서 언급되는 ‘통제감’이란 무엇인가?
- 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원인에 대한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 중 어느 것이 더 강한 지지를 받아 왔는가?

23.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후 과잉 확신 편향’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후 설명이 용이할수록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더 약하게 나타난다.
- ②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③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대한 인지적 설명은 잠입적 결정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 ④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올바른 판단과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
- 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결과로, 우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필연적인 사건들로 해석될 수 있다.

2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심리학자인 피쇼프는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실험 대상자들에게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나 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예측하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	
㉡	닉슨과 마오쩌둥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양국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	
㉢	닉슨이 돌아온 후, 피쇼프는 같은 사람들에게 방문 결과를 어떻게 예측했었는지 다시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했었다고 기억했다. 닉슨과 마오쩌둥의 회담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조차 자신은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피쇼프는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① 동기적 설명에 따르면, ㉠에서 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 약해 ㉡에서 실제 일어난 결과에 더 많이 의존해 답했군.
- ② 동기적 설명에 따르면, 통제감을 확인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동기를 지닌 실험 대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와 같은 실험 결과가 나타난 것이겠군.
- ③ 인지적 설명에 따르면, ㉢의 피쇼프의 물음에 대해 실험 대상자들이 답할 때 ㉡의 회담 결과가 실험 대상자들의 인과관계 모형을 변화시켰을 수 있겠군.
- ④ 인지적 설명에 따르면, ㉠에서 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사람들 중에는 ㉡의 회담 결과에 관한 정보가 자신 지닌 정신적 표상에 통합된 사람들이 있겠군.
- ⑤ ㉢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을 보인 실험 대상자들은 ㉡의 회담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은 사람들이겠군.

[25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의해 지각 내 암석의 광물 조합 및 조직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변성 작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약 100 ~ 500 ℃ 온도와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 일어나는 변성 작용을 ‘저변성 작용’이라 하고, 약 500 ℃ 이상의 높은 온도와 비교적 높은 압력에서 일어나는 변성 작용을 ‘고변성 작용’이라 한다.

변성 작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온도이다. 밀가루, 소금, 설탕, 이스트, 물 등을 섞어 오븐에 넣으면 높은 온도에 의해 일련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 새로운 화합물인 빵이 만들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암석이 가열되면 그 속에 있는 광물들 중 일부는 재결정화되고 또 다른 광물들은 서로 반응하여 새로운 광물들을 생성하게 되어, 그 최종 산물로서 변성암이 생성된다. 암석에 가해지는 열은 대개 지구 내부에서 공급된다. 섭입*이나 대륙 충돌과 같은 지각 운동에 의해 암석이 지구 내부로 이동할 때 이러한 열의 공급이 많이 일어난다. 지구 내부의 온도는 지각의 내부 환경에 따라 상승 비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변성 작용을 더 활발하게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점토 광물을 함유한 퇴적암인 셰일이 지구 내부에 매몰되면 지구 내부의 높은 온도로 암석 내부의 광물들이 서로 합쳐지거나 새로운 광물들이 생성되어 변성암이 되는데, 저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점판암이 되고, 고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편암이나 편마암이 되는 것이다.

암석의 변성 작용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압력이다. 모든 방향에서 일정한 힘이 가해지는 압력을 ‘균일 응력’이라 하고,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더 큰 힘이 가해지는 압력을 ‘차등 응력’이라고 하는데, 변성암의 경우 주로 차등 응력 조건에서 생성되며 그 결과로 뚜렷한 방향성을 갖는 조직이 발달된다. 변성 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운모와 녹니석과 같은 광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며, 광물들은 층의 방향이 최대 응력 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방향으로 배열된다.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판 형태의 운모류 광물들이 보여 주는 면 조직을 ‘엽리’라고 부른다. 엽리를 보여 주는 암석들은 얇은 판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엽리가 관찰될 경우 이는 변성 작용을 받았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저변성암은 매우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 형성된 광물 입자들은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데, 이때의 엽리를 ‘점판벽개’라고 부른다. 반면에 고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입자들이 커지고 각 광물입자들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때의 엽리를 ‘편리’라고 부른다.

고체에 변화가 생겼을 때, 고체는 액체나 기체와 달리 고체를 변화시킨 영향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변성암은 고체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성암에는 지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보존되어 있다. 그들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들을 해석하는 것이 지질학자들의 막중한 임무이다.

* 섭입: 지구의 표층을 이루는 판이 서로 충돌하여 한쪽이 다른 쪽의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

25.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변성 작용이 일어나면 재결정화되는 광물들이 있다.
- ② 변성암은 고체 상태에서 광물 조합 및 조직이 변화한다.
- ③ 지표의 암석들은 섭입에 의해 지구 내부로 이동될 수 있다.
- ④ 균일 응력은 모든 방향에서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는 압력이다.
- ⑤ 차등 응력 조건 하에서 광물들은 최대 응력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2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변성도 →		
	변성받지 않음	저변성	고변성
암석명	셰일 →	점판암	↗ 편암 ↘ 편마암
대표적인 구성 광물	석영, 점토 광물, 방해석	석영, 녹니석, 백운모, 사장석	석영, 흑운모, 석류석, 규선석, 사장석

- ① 셰일과 점판암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이 다른 것은 변성 작용과 관련이 있겠군.
- ② 석영의 존재 여부만으로 퇴적암인 셰일과 변성암인 편마암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겠군.
- ③ 셰일이 변성 작용에 의해 편암이나 편마암으로 되는 동안 지각에서 일어난 일들이 암석에 흔적으로 남아 있겠군.
- ④ 셰일이 지구 내부에 매몰되어 편암이 되었다면 점판암이 될 때보다 더 높은 온도와 더 큰 압력의 영향을 받았겠군.
- ⑤ 점판암에서 백운모가 배열되어 형성된 판 형태의 면 조직은 편마암의 흑운모가 배열되어 형성된 판 형태의 면 조직보다 육안으로 관찰이 쉽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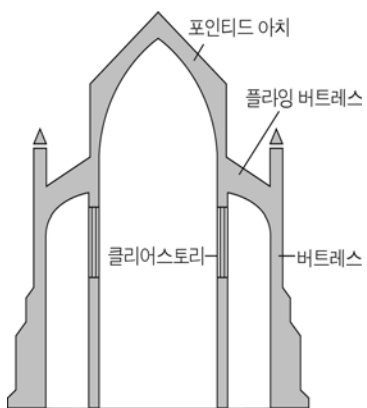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시대에는 종교 건축 분야에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당시 농촌 지역에 활발히 세워지던 수도원의 성당에 적용되었다. 로마의 영향을 받아 둥근 아치 형태였던 천장은 석재로 만들어져 매우 무거웠다. 이를 지탱하기 위해 벽도 두껍고 웅장하게 지어졌다. 벽과 천장의 무게로 인해 창을 크게 만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내부 공간은 채광이 부족해 대체로 어두웠다. 이러한 어두움은 성당의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이러한 로마네스크 양식이 변형을 거쳐 발전한 것이 고딕 양식이다. 당시의 철학에서는 신의 존재를 ㉠ 입증하고자 노력했는데, 고딕 양식은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신의 존재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건축물로 탄생하였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이 신의 ㉢ 현현이라고 생각한 당대의 사람들은 ㉡ 고딕 양식을 통해 신비한 빛으로 가득 찬 성당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런데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창 면적이 넓어야 했다. 창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거운 천장과 벽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창문을 크게 만드는 대신, 성당의 벽을 바깥에서 떠받치기 위해 ‘버트레스’와 ‘플라잉 버트레스’를 만들어 높아진 건물을 지탱하게 했다. 또한 고딕 양식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사용되던 둥근 아치형의 천장을 뾰족하게 솟아오른 형태로 ㉣ 고안해 냈다. 이를 ‘포인티드 아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인해 로마네스크 성당보다 높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천장이 높아지자 벽 옆면에 길고 큰 창인 ‘클리어스토리’를 뚫어 성당 안으로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창에는 다채로운 색채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시공했는데, 빛을 굴절 투과시켜 신비감을 ㉤ 부각하였다. 이후 고딕 성당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지향하게 된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십자군 전쟁이 발발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지의 수도원으로 순례객들이 모여들던 때에 탄생했다. 그들은 웅장하게 지어진 성당을 순례하며 신의 권위와 장엄함을 느꼈다. 한편 고딕 양식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주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고딕 시대의 이주민들은, 비례의 법칙을 거스르며 하늘 높이 수직으로 솟아올라 빛으로 가득해진 도시의 성당에서 신의 존재를 체험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 위무 받고자 했다. 성당 순례를 통해 신을 느끼며 현실에서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던 로마네스크 시대의 사람들처럼 고딕 시대의 사람들도 신에게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했던 것이다. 결국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에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중세 사람들의 종교적 열망을 읽어낼 수 있다.



고딕 성당의 단면도

27.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딕 시대 사람들은 성당에서 신의 존재를 체험하고자 했다.
- ② 로마네스크 양식의 둥근 아치형 천장은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
- ③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이 나타났다.
- ④ 고딕 성당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 지어져 혼란기의 이주민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 ⑤ 성당 내부에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자 한 노력이 고딕 성당의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버트레스’는 성당의 벽을 떠받치기 위한 것이다.
- ② ‘클리어스토리’는 천장이 높아지며 설치된 것이다.
- ③ ‘클리어스토리’에 ‘스테인드글라스’가 시공되었다.
- ④ ‘포인티드 아치’는 둥근 아치를 뾰족하게 만든 것이다.
- ⑤ ‘플라잉 버트레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생겨났다.

29. 위글과 <보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끊임없이 수직을 지향하다 비례 법칙을 어기게 된 고딕 양식에 반기를 든 르네상스 양식은 엄격한 비례미를 추구했다. 그런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자 건축에서 등장한 사조가 매너리즘이다. 매너리즘은 비례 법칙으로는 혼란한 사회상을 표현할 수 없다고 보고, 르네상스 양식을 거부하며 일탈과 변형을 추구한 것이다. 그래서 매너리즘 건축은 기둥을 애매한 간격으로 세웠고, 아래층보다 위층의 창을 더 웅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건물의 장식은 크기, 형태 등에서 규칙적이지 않은 형상을 나타냈다.

- ① 고딕 성당은 초월적 존재에 다가가고자 하는 소망이, 매너리즘 건축물은 당시의 혼란한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 비례의 법칙을 거스르게 된 것이군.
- ② 고딕 성당이 로마네스크 양식을 변형한 데 비해, 매너리즘 건축물은 르네상스 양식에 대한 모방을 통해 새로운 양식을 추구한 것이군.
- ③ 고딕 성당에 비해 로마네스크 성당은 건물의 높이를, 매너리즘 건축물은 위층 창의 높이를 높여 웅장함을 나타내려 한 것이군.
- ④ 매너리즘 건축물은 로마네스크 성당과는 달리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기둥을 애매한 간격으로 세운 것이군.
- ⑤ 매너리즘 건축물과 고딕 성당 모두 건물의 크기와 형태를 규칙적 형상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군.

30.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 ② ㉢: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냄.
- ③ ㉣: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냄.
- ④ ㉤: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⑤ ㉥: 위로하고 어루만져 달랠.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수성궁을 찾은 선비 유영은 꿈속에서, 죽은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 대군의 공녀인 운영은 김 진사와 사랑에 빠진다. 김 진사는 노비인 ‘특’의 도움을 받아 운영과 달아날 계획을 세우나 특의 배신으로 안평 대군에게 들키게 되고, 운영은 자결을 한다. 김 진사는 특을 불러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며 청량사에서 운영을 위한 불공을 드릴 준비를 하라고 분부하나 특은 계속 악행을 저지른다.

때는 마침 왜나무 꽃이 노랗게 피는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과거를 볼 생각은 없었으나 공부를 핑계 삼아 청량사에 올라갔습니다. 며칠을 묵으며 특이란 놈이 한 짓을 자세히 듣게 되었지요. 분을 이기지 못했으나 특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목욕재계한 다음 부처님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린 뒤 향을 살라 합장하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운영이 죽을 당시 했던 약속이 너무도 서글퍼 차마 저버릴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특이라는 종놈으로 하여금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리게 하여 명복을 빌려 했었습니다. 그랬건만 지금 이 종놈이 부처님께 빌던 말을 들으니 패악이 극심하여 운영의 마지막 소원마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감히 다시 비나이다. 부처님, 운영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부처님, 운영을 저의 배필로 맺어 주옵소서. 부처님, 운영과 제가 다음 생에서는 이 같은 원통함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부처님, 특이란 종놈의 목숨을 끊고 쇠로 만든 칼을 썬 뒤 지옥에 가두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운영은 12층 금탑을 세우고 저는 큰 절을 세 곳에 세워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백번 절하며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나왔습니다.

이레 뒤에 특은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세상에 뜻이 없어,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조용한 방에 누웠습니다. 나흘 동안 먹지 않다가 한 번 장탄식을 하고는 마침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적기를 마치고 붓을 놓았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슬피 울었는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유영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두 분이 다시 만나셨으니 소원을 이룬 셈이요, 원수 같은 종놈이 이미 죽었으니 분도 풀렸을 터인데, 어찌 그리도 하염없이 비통해하십니까? 다시 인간 세상에 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시는 겁니까?”

김 진사가 눈물을 거두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원한을 품고 죽었기에 염라대왕은 우리가 죄 없이 죽은 것을 가련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계보다 덜하지 않거늘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밤 서글퍼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대군이 몰락하여 수성궁에 주인이 없어지자 새들은 슬피 울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으니, 이것만 해도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게다가 새로 전쟁을 겪은 뒤 화려하던 집은 잿더미가 되고 고운 담장은 무너져 내려 오직 섬돌의 꽃과 뜨락의 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봄빛은 예전 모습 그대로이거늘 사람 일은 이처럼 바뀌었으니, 이곳에 다시 와 지난날을 추억하매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유영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두 천상에 계신 분들인가요?”

김 진사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신선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를 곁에서 모시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제께서 태청궁에 납시어 내게 동산의 과실을 따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반도와 경실과 금련자를 많이 따서 사사로이 운영에게 몇 개를 주었다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세로 유배되어 인간 세상의 고통을 두루 겪는 벌을 받았지요. 이제 옥황상제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삼청궁(三清宮)에 올라 상제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회오리 바람 수레를 타고 내려와 속세에서 예전에 노닐던 곳을 찾아보곤 한답니다.”

이윽고 눈물을 뿌리며 유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A] “바닷물이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져도 이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천지가 다해도 이 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그대와 만나 이렇게 회포를 풀었으니 전생의 인연이 없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었드려 바라건대 선생은 저희가 쓴 글을 수습하시어 영원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망스런 사람의 입에 헛되이 전해져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김 진사가 취하여 운영에게 몸을 기대며 절구 한 편을 읊었다.

궁중에 꽃 지고 제비 나는데
봄빛은 예와 같되 주인은 간 데 없네.
한밤의 달빛 이리도 서늘하여
버드나무와 가벼운 안개는 푸른 우의(羽衣)* 같네.

운영이 이어서 읊조렸다.

옛 궁궐의 버드나무와 꽃은 새봄을 떠났고
천 년의 호사 자주 꿈에 보이네.
오늘 밤 놀러 와 옛 자취 찾노니
눈물이 수건 적심 금치 못하네.

유영이 취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뒤 산새 울음소리에 깨어 보니, 안개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둑어둑하며 사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다만 김 진사가 기록한 책 한 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유영은 서글프고 하릴없어 책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상자 속에 간직해 두고 때때로 열어 보며 망연자실하더니 침식을 모두 폐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는데,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 우의(羽衣): 신선의 옷.

31.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 진사’는 부처님에게 ‘특’의 죽음을 기원했다.
- ② ‘김 진사’는 청량사에서 ‘특’의 행적을 전해 듣고 분노했다.
- ③ ‘김 진사’는 ‘운영’의 재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다.
- ④ ‘김 진사’와 ‘운영’은 가끔씩 속세에 내려와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고 있다.
- ⑤ ‘김 진사’와 ‘운영’은 그들을 속세에 환생시키려고 한 ‘염라대왕’의 배려를 거절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운영전」은 몽유자가 꿈속에서 남녀 주인공을 만나 겪은 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현실이라는 외부 이야기 속에 꿈이라는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지상계로 내려왔다가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는 적장 화소(謫降話素), 남녀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말하게 한 발상, 삽입된 시와 서사 전개 간의 밀접한 연관, 비극적 성격 등이 잘 어우러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① 몽유자가 꿈에서 깨어난 후 발견한 책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매개하는 소재로 볼 수 있군.
- ② 몽유자가 꿈속에서 남녀 주인공을 만나 그들의 사연을 듣는 공간을 천상계로 설정하여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군.
- ③ 내부 이야기에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군.
- ④ 내부 이야기에서 남녀 주인공이 한을 품고 죽는 것과 외부 이야기에서 몽유자가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이 비극적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군.
- ⑤ 남녀 주인공이 읊은 시는 특정 공간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 내용과 연관되어 그들이 느끼는 슬픔과 무상감을 부각하는군.

3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각오를 밝히고 있다.
- ② 보답을 암시하며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⑤ 우려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막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넷 사람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들소냐

< 중략 >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몰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밭이 낀 거이고

- 정극인, 「상춘곡」 -

(나)

광영지(光影池)에서 서쪽으로 화살 한 번 쏘 만한 거리에
 줄지어 있는 소나무와 어지러운 나무들을 지나가면 와룡폭포가 있다.

폭포의 바닥은 다 돌이다. 돌은 난가대(爛柯臺)에서부터 일직선으로 퍼져 와룡담에 이르러 그쳤다. 그 사이는 백여 보 정도이다. 그 돌의 빛은 꽤 흰데 형체가 비록 누웠기는 하나 위쪽이 약간 높고 차례로 점차 낮아져서 손바닥을 옆으로 드리운 것 같다.

폭포는 명덕동(明德洞)에서부터 시작하여 흘러나온다. 한 갈래는 남쪽으로, 한 갈래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돌에 이르러 합류하는데, 화살처럼 빠르고 물병을 지붕에 거꾸로 얹어 놓은 것처럼 급히 쏟아진다.

물이 흘러가다가 길을 가로막고 누워 있는 돌을 만나게 되면 떨어져 내리는 기세가 비로소 급하게 된다. 돌은 물의 맹렬한 두들김을 견디지 못하여 가운데가 호박같이 되었다. 구슬이 튀고 눈이 물 끓듯 세차게 일어난다.

그 넘쳐흐르는 나머지가 흩어져 연못이 되었으니 흔들리며 움직여 맑고 깨끗하여 손을 씻어도 좋고 이를 닦아도 좋으며 빨래를 할 수도 있다. 물과 돌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공을 들인 보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여름철에 비가 크게 내리면 폭포는 부르짖고 성냄이 천둥벼락같다. 그 기세는 돌을 걷어 가지고 달아날 것 같다. 뿔어 달리는 물방울이 사방으로 날아올라 소나무 가지 끝에 흰 무지개 같은 무리가 가끔씩 있어 매우 기이하고 장관이다.

옛날에는 양쪽 언덕에 걸쳐 정자가 있어 물이 난간 아래로 흘렀는데, 이것이 거센 물결을 견디지 못하여 끝내 무너진 지

가 여러 해 되었다. ㉔ 지금도 남은 주춧돌 너댓 개가 기울어 지거나 혹은 선 채로 있어서 오히려 옛터를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산에 살면서 할 일이 없다. 늦게 밥을 먹고 나면 커다란 샷갓을 쓰고 새로 지은 학창의를 입고 막대기를 끌며 천천히 걸어간다. 연못가의 오래된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도덕경』 몇 장을 읽는다.

어쩌다가 팔을 베개 삼아 늘어지게 한잠 자노라면 산에 해가 기우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잠이 어슴푸레 깨어서 나무 사이의 하늘을 쳐다보면 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하늘빛이 보인다. 패옥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귀에 가득하고, 저녁 새가지지를 돌며 날아 지저귀는 것이 들릴 뿐이다.

이때 나의 가슴속엔 한 가닥의 생각도 없다. 마음이 화락하여 내가 나를 잊는다. 어찌 연못과 같은 사물에 노니는 것이겠는가. ㉕ 나는 하늘에 노니는 것이지, 세속의 사물에 노니는 것이 아니다.

— 채제공, 「와룡폭포기」 —

* 수간모옥: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우거진 속.

* 미음완보: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닐.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 ③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대상을 관찰하여 양면적 속성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 과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35. ㉔ ~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청자에게 묻는 방식을 통해 화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㉔: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흥취를 환기하고 있다.
- ③ ㉔: 시냇물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㉔: 과거를 회상하며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자연미를 체험하는 방식에는 ‘유거(幽居)’와 ‘탐승(探勝)’이 있다. 유거는 작가가 은거하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 주위를 노닐며 즐기는 방식이고, 탐승은 작가가 거주지에서 멀리 떠나 여러 명승지를 거점으로 삼아 낯선 곳을 기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유거가 나타난 작품들은 거주지나 그 주위의 자연을 제시하면서 일상의 생활 체험을 보여 주는데,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유거는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므로 심리적 만족감을 동반한다. 「상춘곡」과 「와룡폭포기」는 이와 같은 유거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가)의 ‘수간모옥’은 작가가 유거를 체험하는 거주지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무릉이 갓갑도다’는 작가가 유거 속에서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늘어지게 한잠 자노라면’은 작가가 유거를 통해, 익숙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저 밭’과 (나)의 ‘연못’은 작가가 낯선 곳을 기행하기 위해 거점으로 삼은 명승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흥(興)이익 다를소냐’와 (나)의 ‘마음이 화락하여 내가 나를 잊는다.’는 작가가 유거를 통해 느낀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7. <보기>를 참고하여 ㉕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1779년 2월 채제공은 명덕동으로 이사하였다. 갑작스럽게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이곳에서 산수를 즐기며 여유와 안정을 찾았다. 채제공은 와룡폭포 근처의 ‘난가대’를 특히 좋아했는데, ‘난가’가 신선의 땅이라는 뜻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의 복장인 ‘학창의’를 입었고, 자주 읽으면 신선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 『도덕경』을 탐독했다.

- ① 신선의 삶보다 자신의 삶이 낫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 준다.
- ② 신선의 품격을 추구하다가 봉착하게 된 자신의 한계를 보여 준다.
- ③ 신선의 땅에서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여 준다.
- ④ 신선의 삶을 동경하며 생활하다가 느끼게 된 정신적 경지를 보여 준다.
- ⑤ 신선의 생활과 세속의 생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위안을 보여 준다.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단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 [A]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불거져 나왔다
군데군데 굳은살에 웅이가 박혔다
먼 길 걸어왔단 뜻이리라
- [B]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나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껍질 그 안 쪽으로
- [C]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 가는데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 준다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 [D]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그러니 선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 [E] 때 아닌 낮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잡지 않는다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

—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

38.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기며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는 (가)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를 낭송하는 것은 시를 특정한 호흡과 어조로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의 수나 길이 등은 시를 낭송할 때의 호흡에 영향을 줍니다. 각 연이나 시행마다 일정한 시간을 배분하여 낭송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 낭송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조를 사용하여 낭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시를 어떻게 낭송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해 볼까요?

- ① 1연은 다른 연에 비해 행의 길이가 짧으므로 대체로 느리게 낭송하고, 특히 ‘머언 바다’를 지향하는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게 해야겠어요.
- ② 2연은 다른 연에 비해 행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대체로 빠르게 낭송하고, 특히 ‘아주 내어 밀듯이’는 지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에 유의하는 게 좋겠어요.
- ③ 3연은 명령형 종결 어미가 반복되며 화자의 정서가 점차 고조되고 있으므로, 특히 마지막 행에서는 느낌표에 유의하여 격정적인 어조로 낭송하는 게 좋겠어요.
- ④ 4연은 다른 연에 비해 행의 수가 적어 음절 수가 적으므로 대체로 느리게 낭송하고, 특히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는 좌절감이 드러나는 어조로 낭송하는 게 좋겠어요.
- ⑤ 5연은 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으므로 점차 빨라지는 급박한 호흡으로 낭송하고, 특히 ‘향단아’를 읽을 때는 체념적 어조로 낭송하는 게 좋겠어요.

40.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나)는 ‘나무’로 상징되는 식물적 이미지를 인간적 이미지로 치환하는 상상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하고,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삶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기를 긍정하고 타자를 포용하는 삶을 이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A]: 웅이가 박힌 느티나무 뿌리를 먼 길을 걸어온 발로 치환하는 상상력이 나타나고 있군.
- ② [B]: 화자는 느티나무에게서 동질감을 느끼며 느티나무와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군.
- ③ [C]: 속살이 썩어 비어 가는 느티나무 몸통에 꽃을 피우는 풀의 모습에서는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가 드러나고 있군.
- ④ [D]: 화자는 상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군.
- ⑤ [E]: 화자는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는 자기 긍정을 토대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군.

[41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뺏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닦아 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흙에 적서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 있는 사람이 깨워서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녀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감도록 해야지, 암.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잠인들 오죽 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 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걱찢걱 쇠소리를 낼 듯한 철사 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었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단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뺏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뺏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찢은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영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복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암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 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킬킬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 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켠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충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쭉부쟁이와 엉경귀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웅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반합 뚜껑에서 술이 쭈쭈 흘러 떨어지고 있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노인과 함께 산을 내려와 헤어지면서 ‘나’는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회상한다.

어머니는 훌쩍 등을 돌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저고리 셔를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외아들 앞에선 좀체 눈물을 비치지 않던 그녀였다. 아무리 앓아누웠을 때라도 입술을 양당물고 애써 태연해 보이던 그녀가 쭈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 왔었음을. 내 유년 시절의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 그 감잡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사내의 눈빛을, 그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찍혀져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런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워 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자꾸만 자꾸만 밀려 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스물다섯 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기어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밥상을 받아 놓은 채 나는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가닥이 국그릇 속에서 멀정게 식어 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며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4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내적 독백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빈번한 장면의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생사 불명된 존재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주인공은 어린 시절 상처를 입게 된다. 이때부터 ‘망각’과 ‘어둠’으로 표상되는 아버지는 ‘기억’과 ‘빛’으로 표상되는 어머니와 대척점에 놓인다. 그런데 군 복무 중 우연히 발견한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깨닫고 두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쟁의 폭력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①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철사 줄’의 ‘끈질김과 냉혹성’은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보여 주는군.
- ② 주인공이 유해를 수습하다가 ‘현기증’을 느낀 것은 불현듯 망각했던 아버지를 ‘곱고 자상한 눈매’, ‘나직한 음성’으로 기억해 냈기 때문이겠군.
- ③ 주인공에게 ‘은빛으로 반짝’이는 어머니의 표상은 ‘마루 밑 그 깜깜한 어둠 속’의 아버지의 표상과 대비되는 것이겠군.
- ④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대해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라고 연민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은 아버지 역시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깨달은 것이겠군.
- ⑤ 어머니가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에 울고 있다는 주인공의 생각은 어머니를 전쟁의 희생자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군.

43. ‘노인’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쟁의 상처를 보듬는 인간애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제의적 의식과 절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 ③ 전통 윤리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 ④ 전쟁의 원인에 대해 무관심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⑤ 가족 간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44.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남편의 귀환을 소망하는 어머니의 간절함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에서 ‘나’의 마음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는 세파에 시달려 온 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굳은 믿음이 한때 흔들렸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에서 남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는 오랜 세월 어머니가 외로운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45. 윗글의 장면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오는 것은?

- ① 밥상에서 미역국이 식어 가는 장면
- ② 군인들이 봉분을 만들고 음복을 하는 장면
- ③ 노인이 철사 줄 묶음을 허공에 던지는 장면
- ④ 어머니가 내게 등을 돌리고 앉아서 우는 장면
- ⑤ 아버지가 밤에 산길을 따라 도망치듯 떠나는 장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